

울산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G. F. HANDEL

MESSIAH

— 헨델 메시아 —

Events

울산시립교향악단 마스터피스 시리즈 IV	04
울산시립합창단 헨델 메시아	06

Special Performance

기획공연 뮤지컬 루나틱	08
기획공연 디셈버 재즈 앤 월드뮤직	10
기획공연 이브로만 : 울산아카펠라콘서트	12
기획공연 이십세기 이승환+	14

Arts Class

아트 클래스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	15
-----------------------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20년 12월호 통권 240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남구 변영로 200(달동)

발행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김지태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

기획·편집 홍보마케팅팀 T.052) 226-8241 ~2

디자인·제작 시냇가에심은나무

Arts & Story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20 역사를 떠난 민족은 없다, 그대로 박생광	18
커뮤니티 아트 9 참여예술과 비판적 예술, 그리고 커뮤니티 아트	22
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19 '들소'	26
미학의 눈 - 작품해석과 감상 9 말하지 못한 것들	30
뮤지컬 '고스트' 영화 사랑과 영혼을 무대에서 즐긴다	34



Information

12월 공연·전시가이드	38
공연일정	40
전시일정	42
울산지역 공연 & 전시 정보	44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이용 방법	45
유료회원 특별혜택	46
협약점 이용방법	47



울산시립교향악단 제212회 정기연주

마스터피스 시리즈 IV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MASTER PIECE

Series IV

M

지휘 니콜라이 알렉세예프
Conductor Nikolay Alexeev

바이올린 배원희
Violin WonHee Bae

2020. 12. 24. Thu. 8PM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가격_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 유료회원 30% | 단체(10인 이상) 20% | 학생(초,중,고) 및 청소년증 소지자 50% 할인
공연문의_ <http://ucac.ulsan.go.kr> T. 275-9623~8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이 가능한 공연입니다.

2020 울산시립교향악단 제212회 정기연주회

최상의 클래스로 최고의 클래식을 선사하는 2020 Masterpiece Series 4

마에스트로 니콜라이 알렉세예프가 이끄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의 2020 마스터피스 시리즈 올해 마지막 정기연주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팬데믹 상황으로 그 빛이 바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그를 기념하기 위한 연주들이 열렸습니다. 지난시간에 이어 연주될 베토벤 교향곡 제6번은 천진난만한 밝음이 가득하며 베토벤 자신이 <전원>이라는 표제를 붙인 명작품입니다. 또한, 성숙한 음악성과 눈부신 테크닉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배원희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을 협연합니다. 감동 가득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 / 피가로의 결혼 서곡
Mozart / The Marriage of Figaro Overture K.492

모차르트 /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작품216
Mozart / violin concerto No.3 in G major, K.216

1. Allegro,
2. Adagio,
3. Rondo-Allegro

Intermission 휴식

베토벤 / 교향곡 제6번 '전원' 바장조 작품68
Beethoven / Symphony No.6 'Pastorale' in F major, op.68

1. Allegro ma non troppo
2. Andante molto mosso
3. Scherzo, Allegro
4. Allegro
5. Allegretto

출연진



예술감독 겸 지휘자 니콜라이 알렉세예프
(Conductor Nikolay Alexeev)

- 상트페테르부르크 글린카 합창음악학교 및 국립음악원 졸업
- 카리안 국제콩쿠르, 도쿄 국제콩쿠르, 탈리히 국제 콩쿠르 등 다수 입상
- 에스토니아 국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역임
- 현)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 현)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예술 조감독
- 현) 울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바이올린 배원희
(Violin Bae won hee)

- 예원학교, 커티스 음대 졸업, 영국 왕립음대 석사
- 쾰른국립음대 (Konzertexamen)과정 최우수졸업
- 프랑스파리고등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서울시향,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벨기쉬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다수 협연
- 한국일보 콩쿠르 대상, 영차이콥스키국제콩쿠르 2위 등 다수 입상
- 현) 독일 뒤셀도르프 루빈스타인 아카데미 최연소 교수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이 가능한 공연입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운영알림

1. 공연장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은 입장 전 증상여부(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등)를 확인합니다.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출입이 제한됩니다.
3.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QR체크인 또는 방문리스트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폐기)
4. 공연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G. F. HANDEL
MESSIAH

— 헨델 메시아 —

2020.12.8.(화)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_ 전석10,000원 할인_ 회관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 학생(초/중/고) 50% **수험생 무료 (수험표 지참)**

문의_ 052 275 9623 <http://ucac.ulsan.go.kr> 관람등급_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고난속의 역작, 세계3대 오라토리오! 울산시립합창단과 국내 최고의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헨델 메시아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다.

바로크시대 거장 헨델이 작곡한 '메시아'는 종교음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하이든의 '천지 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아'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어지는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이다.

1741년, 곤경에 빠진 헨델에게 더블린으로부터 자선음악회 제안이 들어왔다. 그 제안은 헨델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음악 역사상 위대한 음악작품을 탄생시킨 된 계기를 마련했다. 헨델은 그 음악회를 위해 <메시아>를 작곡해 오페라 작곡가로서 겪어야했던 경제적 실패를 만회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오라토리오 작곡가로서 우뚝 설 수 있었다. 헨델은 <메시아>의 제1부를 6일 만에, 제2부는 9일, 제3부는 3일 만에 완성했고, 관현악 편곡 작업은 2일 만에 끝냈다. 결국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완벽한 악보로 탄생했다. 연주시간이 거의 2시간에 달하는 이 대작을 겨우 24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헨델 스스로도 <메시아>를 완성한 후 "신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것만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서곡을 포함 총 53곡으로 구성된 대서사시로, 밝고 평온한 분위기의 제 1부는 예언과 탄생, 극적 긴장감을 이끌고 있는 제 2부는 수난과 속죄, 제 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 등 총 3부로 구성되어져 있다.

특히 제 2부의 '할렐루야 코러스'는 단독으로 연주될 정도로 인기 있고 널리 알려진 곡이다. 초연 당시 참석했던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이 곡에 감격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전해진 이후 관객들이 일어나는 전통이 생기기도 했다.

PROGRAM

G. F. Händel(1685~1759) Messiah HWV56

- Part I Prophecy, Birth
(제1부 예언, 탄생)
- Part II Suffering, Expiation
(제2부 수난, 속죄)
- Part III Resurrection, Immortality
(제3부 부활, 영생)



지휘자 조은혜

· 독일베를린국립음악대학 HannsEisler
Diplom (합창지휘), 학사(오케스트라) 졸업
· 독일하노버 국립음대(HMTMH) 최고연주자
과정 (합창지휘) 졸업
·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유럽합창지휘협회
(ECA) 국제합창지휘공쿨 2위
· 2016년 국립합창단 합창지휘 경연대회 1위
· 국립합창단 상임 부지휘자 역임
· 대전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객원지휘
現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지휘자



소프라노 조지영



알토 양송미



테너 석정엽



베이스 전태현



울산시립합창단



울산남구교회교향악단

지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처방전

미칠것 같은 세상

MUSICAL

루나티크

2020. **12. 5.**(토) 오후 3시, 7시 (1일 2회)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3만원 / S석 2만원 **입장연령** 초등학생(8세) 이상

예매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www.ucac.ulsan.go.kr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없는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

루나틱

어디가 부러진 것도, 피가 나는 것도 아닌데

환자가 넘쳐나는 병원 **루나틱**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사실 이들은 마음에 감기가 걸린 환자.

근데..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 왠지 너무 행복해 보인다.

대체 왜죠???



마음을 열고 보면 루나틱 병동은 참 재밌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 모두 여러분들 처럼 행복해 지려는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정신병자 환자들이요, 마음에 감기가 걸린 거거든요~

여러분도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마음에 감기가 걸린 것 같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어요!

이제 행복해지실 거예요!

루나틱

SYNOPSIS

저마다의 다른 상처들로

마음에 크고 작은 감기가 생겨 찾는 병원 '루나틱'

오늘도 많은 환자들로 넘쳐나는 루나틱 병동의 진료가 시작된다.

오늘의 마음치료 진료는 역할극!

역할극을 진행하는 담당의사 **굿닥터!**

마음의 치료를 받는 환자 '나제비'와 '고독해'

두 환자는 자신이 **마음의 감기**가 걸리게 된 사연을 직접 연기함으로

그들의 상처를 다시한번 들여다 보게 되는데..

진정제는 쓰지 않는 **굿닥터**의 특별한 처방전으로

환자들의 행복을 찾아가는 **루나틱** 병동.

나제비와 **고독해**도 건강한 마음으로

병동에서 퇴원할 수 있을까..



Today "오늘"

똑같은 과제, 불확실한 미래, 알은 텅장 잔고
매일 뭐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없는 요즘, 너무 힘들죠?

그런 오늘도 임하는 필요하니까요.

오늘 루나틱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With "함께"

혼영, 혼밥, 혼술... 혼자가 대세이지만
그래도 함께해야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아요!

루나틱도 그럴답니다!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기는 뮤지컬 루나틱!

Happy "행복"

행복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굿닥터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특별한 처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한 처방이 뭔지 궁금하시죠?

행복해지실 준비 하세요, 지금 루나틱 병동으로 오세요!



DECEMBER JAZZ & WORLD MUSIC

디 셈 버 재 즈 & 월 드 뮤 직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20.12.11.(금) 오후8시

2020.12.12.(토) 오후5시

2020.12.13.(일) 오후5시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작
과가컬처레이블

출연팀
파이브 브라더
강허달림
모던 사운즈 재즈빅밴드
하림과 블루카멜양상블
Moon(혜원) with 준스미스
NA EM프로젝트(플라멩코)

관람연령
초등학생이상 입장가

소요시간
100분(휴식10분포함)

티켓
전석1만원

예매 및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ucac.ulsan.go.kr

디셈버 재즈 & 월드뮤직

12. 11 [FRI] 20:00



파이브 브라더

1. Summer dance is
2. Quizas quizas quizas
3. Le festin
4. 봄날은 간다
5. 상사화
6. Sabor a mi
7. wayfaring stranger
8. You're my sunshine



강허달림

1. 연주곡
2. 연주곡
3. 외로운 사람들
4. 미안해요
5. 골목길
6. 기달림, 설레임
7. come rain or come shine
8. Georgia on my mind
9. I can't stop loving you
10. 꼭 안아 주세요

12. 12 [SAT] 17:00



모던 사운즈 재즈빅밴드

1. New york new york
2. Pink panther
3. The way you look tonight
4. Route66
5. Love
6. Take the "A" train
7. In the mood
8. Water melonman
9. What a wonderful



하림과 블루카멜앙상블

1. 풍차도는 고향 + 청춘계급
2. Misilou + Havanagila
3. 북천이따다커늘
4. Aranjuez mon amor
5. Ederlezi + 사의찬미
6. 먼 아리랑
7. 노래가락 차차차 + 태평가
8. 풍차도는 고향

12. 13 [SUN] 17:00



Moon(혜원) with 존스미스

1. Kiss me
2. 물안개
3. Let it flow
4. Solitary moon
5. No moon at all
6. So many stars
7. Those sweet words
8. The very thought of you
9. Be true to me
10. So in love



NA EM프로젝트(플라멩코)

1. Taranta
2. Martinete de triana
3. Vidalita y milonga
4. Guajiras
5. Peteneras
6. Malagueña y abandolaos

오브로마

울산아카펠라콘서트

모노 | 노래숲 | 아우름앙상블 | 엑시트 | 울산시립합창단

2020. 12. 16.(수)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관람연령 초등학생(8세) 이상 예매 및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https://ucac.ulsan.go.kr>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이브로만 : 울산아카펠라콘서트

자극적인 음악에 지친 당신,
아카펠라의 아름다운 선율로 쉬어주세요.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오는 16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울산아카펠라콘서트 <이브로만>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지역예술단체에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기획된 자체 제작공연으로, 연말을 따뜻하게 장식할 '아카펠라'의 환상적인 하모니로 관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

<이브로만>은 '반주없이 입으로만 하는 합창'을 뜻하는 아카펠라의 특성을 표현한 공연명이며,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인 노래숲, 아우름앙상블, 모노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 공연문화를 선도하는 울산시립합창단과 세계적인 5인조 아카펠라그룹 엑시트가 함께 한다. 자칫 올드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아카펠라의 고정관념을 깨고 관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지역민이 코로나블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위축된 지역문화예술계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브로만 : 울산아카펠라콘서트」는 12월 16일(토)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며,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예매는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다.

INFORMATION

공연명	이브로만 : 울산아카펠라콘서트	공연시간	약 100분
공연일시	2020. 12. 16.(수) 오후 7시 30분	관람료	전석 10,000원
공연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등급	초등학생(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노래숲, 아우름앙상블, 모노, 엑시트, 울산시립합창단	공연예매	052)275-9623 www.ucac.ulsan.go.kr

출연팀



모노



아우름앙상블



노래숲



울산시립합창단

특별출연



엑시트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2.26(토) 오후5시
주최 ▲ 울산광역시 | 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주)하늘이엔티 | 제작 (주)드림팩토리클럽



**THE 20TH
CENTURY**
LEE SEUNG HWAN⁺

아트 클래스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

강 연 전원경

미술작품 프란체스코 하예즈, 산드로 보티첼리,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전원경 강연(진행)

연세대학교 졸업, 영국 시티대학교 런던(City University London) 예술비평 및 경영 전공 석사
글라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 문화콘텐츠산업 박사 학위 / 월간 '객석'과 '주간동아' 문화팀 기자
<예술, 역사를 만나다>, <클림트>, <런던 미술관 산책>, <영국: 바꾸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등 집필
예술의 전당 인문아카데미,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예술 역사,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강의 중
수원 SK아트리움에서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5년째 진행 중 /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해설음악회 진행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 2년째 진행 중



김주영 피아니스트

서울대 음대 기악과 피아노 전공 졸업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 대학원 및 연주박사 과정 졸업
모스크바 프로코피예프 예술기념 국제 콩쿠르 1위없는 2위
파리 그랜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
상명대 겸임교수 역임
저서 <클래식 수업>, <피아니스트 나무>, <김주영의 영클래식> 외 다수



김선정 메조소프라노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
독일시립극장 오페라 주역
국내 국립오페라단, 시립오페라단 외 여러 단체와 <카르멘>, <보체크>, <신데렐라>, <파르지팔>, <리골렛토>, <오텔로>, <탄호이저> 등에서 주역
현, 전문 연주가로 활동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김지윤 바이올리니스트

예원학교 수석 입학 및 수석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및 최고연주자과정 이수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제2바이올린 수석 역임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 발굴아카데미 강사,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정단원,
디토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악장 겸 수석

강연개요

강 연 명 아트 클래스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
일 시 / 장소 2020. 5. 7, 11, 12월, 총 4회 / 소공연장

일자	5. 21(목)	7. 24(금)	11. 20(금)	12. 22(화)
시간	11:00~12:40(100')	11:00~12:40(100')	11:00~12:40(100')	11:00~12:40(100')

입 장 료 전석 10,000원

입 장 등 급 초등학교생(8세) 이상 관람가

예매 및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http://ucac.ulsan.go.kr>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하예즈 키스

12.22.^{TUE}

마지막 이야기 '사랑과 이별'

문화예술회관의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는 강연(Lecture)과 공연(Concert)이 합쳐진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미술작품 감상과 음악 연주를 직접 들으며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강연이다. 그간 예술과 자연, 노동과 휴가, 예술과 일상 등 다양한 주제로 예술적 지식을 만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마지막 편은 예술의 영원한 테마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예술작품들을 만나볼 예정이다. 사랑과 이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림, 조각, 가곡, 오페라, 기악곡들의 창작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분석해보면 결혼보다는 슬픈 이별이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결말로 여겨지곤 했다. 실제로 사랑을 노래한 많은 걸작들은 사랑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창작된 경우가 더 많다.

사랑을 잃고, 또는 영원히 얻을 수 없는 연인을 꿈꾸며 창작한 작품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며 사랑과 이별이 예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승화되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오는 12월 22일 소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진행자 전원경은 예술전문작가로 <예술, 역사를 만들다>, <영국 : 바꾸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런던 미술관 산책> 등의 책을 썼으며, 현재 서울, 천안, 대전 등 활발한 강의와 라디오 등 출연하고 있다.

프란체스코 하예즈, 산드로 보티첼리,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작품 설명과 함께 슈베르트, 리스트, 슈만, 쇼팽의 곡을 피아노 김주영,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바이올린 김지윤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전원경의 그림 콘서트 입장료는 전석 10,000원으로 유료회원 할인으로도 만날 수 있으며 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예매가 가능하다. 추운 겨울, 풍성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보고 듣는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다.



산드로 보티첼리 봄

Franz Peter Schubert [슈베르트] ... 세레나데

Franz Liszt [리스트] ... 혼례

사랑의 인사, 사랑의 슬픔

Robert Alexander Schumann [슈만] ... 여인의 사랑과 생애

Fryderyk Franciszek Chopin [쇼팽] ... 에튀드 '이별'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트리스탄과 이졸데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20 | 이인숙
『석재 서병오 필묵에 정을 담다』 저자

역사를 떠난 민족은 없다, 그대로 박생광

단청 연구에서 찾은 색채의 세계

화가들은 어떤 '작품'에 매달리고 있지 않을 때라도 늘 '작업'을 하고 있다. 형태를 잡아보는 데생이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구도를 대략 짜 보는 스케치든, 윤곽선으로 간략하게 그려보는 드로잉이든, 어떤 동작의 특징을 재빨리 포착하는 크로키든, 곧 착수할 작품을 설계하는 에스키스든 손을 놓게 하지 않고 연습한다. 종이에 연필 등 간단한 재료를 사용하는 이런 밑그림 류는 '드로잉'으로 불리며 전시, 아카이브, 경매, 수장 등에서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완성작과 드로잉이 모두 남아 있는 경우 서로 비교해 보는 재미도 있다. 드로잉은 작품의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라 작가의 머릿속을 탐험하는 듯한 경이로움이 있고, 대부분은 관람될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작가가 가진 생생한 심미적 특질을 보여준다. 드로잉은 위풍당당한 완성작 뒤에 숨어 있는 매력적인 원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을 준다.

〈단청 연구〉는 박생광(1904-1985)이 자신만의 고유한 색채표현을 위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단청의 한 부분을 직접 그려 보며 공부했음을 잘 보여주는 드로잉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수평으로 엮는 가로재 머리 부분인 '모로 단청'의 디자인과 색채 배열을 관찰해 연필로 문양을 그리면서 녹, 군, 적(赤), 청(靑), 백(白)선, 백(白)녹 등 한자와 한글을 섞어가며 색깔을 하나하나 적었고 화실로 돌아와 수채물감으로 색칠했을 것이다. 오른쪽 아래에 〈박생광씨(朴生光氏)〉 인장이 있는데 작가가 직접 찍었을 것 같지는



박생광 〈단청 연구〉 종이에 수채와 연필, 17.7×25cm, 개인 소장

않다.

박생광이 자신의 대표작들을 그리던 1980-1985년의 시기는 수묵화가 한국화의 대세이던 때여서 채색화가로서 이룬 그의 성취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사실 감상화로서 채색화의 자리가 넓지 않았던 것은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근현대 한국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회화의 주류를 양반사대부계층의 감상화라고 할 때 유학자인 그들이 선호한 그림은 먹을 위주로 하는 수묵화 또는 수묵담채화가 대부분이었다. 원색이 가진 색채의 효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진채화(眞彩畵)는 궁궐의 장엄, 사찰의 종교적 예배, 민간의 생활 속 치장 등 비주류 미술에 속했다.

조선시대 채색화 중에는 궁화(宮畵)로 통칭할 수 있는 궁궐에서 소용되었던 그림들이 있다. 왕의 어진과 공신상 등 초상화, 교훈적인

내용을 그리는 감계화 등 왕실 구성원들을 위한 감상화, 궁궐 건축의 일부를 이루기도 했던 장식화, 국가 행사를 그림으로 남긴 기록화 등이다. 채색화를 보통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은 전국 곳곳에 있었던 사찰로 주요 전각의 후불탱화인 불보살상과 신중상, 산신도, 감로탱, 괘불화 등이 있고, 또 다른 종교적 용도의 채색화로 무속 의례에 쓰인 그림들이 있다. 불화와 무속화는 종교화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수량과 노출도에 있어서 조선시대 채색화의 주요 축을 이룬다. 조선후기에 생활 속의 치장과 벽사, 의례를 위한 용도로 서민층의 수요에 응해 나타난 민화(民畵)도 조선시대 채색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민화는 의례용 병풍 등 대규모 그림 이외에는 벽이나 문 등에 그대로 붙이는 일회성으로 사용되어 낡으면 버리거나 그 위에 새 그림을 덧발라 옛 그림이 잘 보존되지 못했다.

이러한 채색화는 숙련된 솜씨를 가진 전문 화가인 도화서 화원, 불모(佛母) 또는 금어(金魚)라고 했던 승려화가인 불화사(佛畵師), 전문적인 훈련 없이 싸구려 그림을 그렸던 민간 화사 등 기량의 우열과 승속(僧俗)이 섞인 다양한 계층의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다. 박생광은 궁화, 불화, 무속화, 민화 등에 나타난 색채의 전통을 흡수했고 건축의 한 부분으로 이어져온 사찰의 단청도 적극 활용했다. 궁궐이나 사찰, 민간에서 그려진 작가들 알 수 없는 대부분의 채색화는 수준의 높낮이를 떠나 화가의 개성적 창조력을 우선적 가치로 하는 감상화들과 다르다. 교양 있는 감상 층을 위한 순수 미술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습에 의지해 전승된 사회적 미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채색화는 한 사회의 집단적 감수성이 다수의 미술 종사자들에 의해 누적적으로 축적된 결과물이다. 박생광이 절집의 단청을 스케치하며 흡수한 것은 바로 이런 역사성을 가진 색채였다.

언제나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항상 깨어있는 수행자를 위한 나무물고기

〈목어(木魚)〉와 〈목어 밀그림〉은 완성작과 밀그림이 함께 남아 있는 예이다. 목어는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깎아 만들고 채색을 한 불교의 의식용 법구로 이 목어를 두드려 내는 소리로 물속의 모든 생명을 제도한다고 한다. 절에 가면 종, 운판, 법고와 함께 범종각 안에 매달려 있는 사물(四物)의 하나로 몸통은 물고기지만 머리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이어서 사실은 용두어신(龍頭魚身)이다. 이 두 작품은 채색만 빼면 크기도 같고 그림내용도 같다. 마치

단청을 할 때 분본(粉本)이라고 하는 초본을 사용해 목재 위에 초를 잡아 놓고 색을 입히는 방식과 유사하게 밀그림을 먼저 만들어 놓았던 것 같다. 2019년 대구미술관에서 ‘박생광’전이 열릴 때 이 두 작품이 나란히 걸려 〈목어 밀그림〉의 단단하고 우직한 선질(線質)에서 작가의 심성을 엿볼 수 있었고, 〈목어〉에서는 화려한 채색, 빈틈없는 화면 구성, 주제를 복돋우는 배경처리, 박생광 고유의 특징적인 낙관 등 아름다움을 한껏 고조시킨 실력 발휘를 밀그림과 비교하며 볼 수 있었다.

아래쪽에 한글로 “사천삼백십사년 박생광”을 연이어 길게 가로로 썼고 백문방인 〈박생광인(朴生光印)〉을 찍었다. 육십갑자나 서력 기원 대신 단군을 기원으로 시간을 헤아리는 단기로 해를 표시한 것은 우리 역사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의 표현이다. 〈목어〉를 그린 1981년은 일간 신문에서 국한문을 혼용해 한자를 그대로 노출 시키며 활자를 세로로 배열하던 시대였다. 신문의 한글전용과 가로쓰기는 1988년 ‘한겨레신문’이 창간되면서부터였고 이후 1990년대 중반 다른 종합일간지들로 확장되었다. 박생광의 단군 기원, 한글 전용, 가로쓰기 등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그의 뚜렷한 인식과 자부심을 선구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에 사용한 인장은 한자인데 얼마 후 인장까지 한글로 새겨 사용함으로써 그의 독특한 한글 전용 낙관 형식이 완성된다.

박생광이 목어를 스케치한 작품이 여러 점 있다. 그 중에는 연필로 목어를 그리고 부분 부분에 색깔을 표시해 놓고 그림 위쪽에 한자로 “목어(木魚) … 수중중생구제(水中衆生救濟)”로 쓰고 “1971. 3. 21 범어사”로 적어놓은 것이 있어 목어에 대한 관심이 일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목어〉는 붉은 주황색 윤곽선으로 붉은색, 노란색, 녹색, 청색, 흰색 등 형태를 구성하는 색면을 감싸며 용두어신의



박생광 〈목어〉
1981년(78세), 종이에 먹과 채색, 68.5×68cm, 개인 소장



박생광 〈목어 밀그림〉
종이에 먹과 채색, 68.5×68cm, 개인 소장

목어와 단청한 들보를 그렸다. 불교적 소재지만 종교적이라기 보다 전통과 민족을 은유하는 하나의 이미지로서 한국성(Korean-ity)을 환기시킨다. 절집의 불화와 단청이라는 역사적 미술에 담긴 거대 서사인 민족적이고, 민족적인 감정을 박생광은 팔순의 나이에 이르러 자신의 서사로 완성해 낸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감상화로서 채색화의 전통이 약했고 일제강점의 근대기 동양화단 채색화는 대부분 일본 화풍이었다. 근대기에 대중의 이목이 쏠린 가장 큰 미술행사였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상하는 일은 화가의 등용문이자 명성의 지름길이었다.

이 전람회를 주최한 식민당국자인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심사 위원 배정이나 당선작의 경향 등을 통해 일본화풍을 조장했다.

시대의 대세에 순응하고 감상층의 취향에 동조했던 일본화풍 채색화는 광복 후 청산의 대상이 되었고, 나아가 채색화 자체가 왜색으로 여겨지면서 한국화 화단은 더욱 수묵화가 지배하게 되었다. 채색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환영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진주에서 태어난 박생광은 그림 재능을 인정받아 17세 때 일본 교토로 유학해 일본화를 배웠고 일본에서 화가 생활을 하다 42세 때인 1945년 1월 귀국했다. 1967년 진주에서 서울로 주거지를 옮겼고 부산을 중심으로 동경, 진주, 마산 등에서 작품을 발표했다. 일본에 다시 건너가기도 하고, 오랜 기간 절필하며 방황하기도 한 그는 화풍 또한 변화를 거듭했다. 일찍 재능을 인정받고 화가의 길로 들어섰음에도 어떻게 보면 1980년께 이전 60여 년간은 그 이후를 위한 모색기였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소재를 그리며 여러 기법을 넘나들던 박생광은 1970년대 부터 십장생, 고건축, 창호, 탈, 단청 등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모티브를 본격적으로 등장시키며 이전의 수묵화풍이나 일본화풍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채색화를 개발하며 새로운 작품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78세 때인 1981년 백상미술관 개인전과 81세 때인 1984년 미술화관 개인전에서 박생광은 완성된 자신의 양식을 대작으로 발표하며 화단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두 전시회 사이인 1982년 인도를 여행하며 불교유적을 둘러본 것은 그의 예술적 상상력을 북돋워 박생광은 “잘생긴 것을 내나라 옆에서 찾고, 마음을 인도에서 보고, 그것들을 그린 나의 어리석은 그림들”이라고 했다. 1985년 7월 18일 작고한 그가 자신의 대표작들을 그린 것은 1980년 77세 때 부터다. 생애 마지막 6년 동안 홀연히 맺은 결실로 그는 한국미술사에 영원히 남는 대가로 자리매김 되었다.

20세기 한국화가로서 박생광은 무엇보다 강렬하고 아름다운 색채의

화가이다. 절집의 단청은 박생광이 자신의 색채 세계를 이루는데 참조한 중요한 근원이다. 근현대기의 어떤 화가도 박생광처럼 강렬한 원색을 구사하며 역사와 전통을 주제로 삼아 우리나라 고유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개성적인 양식을 이루지 못했다. 박생광이 우리나라 미술평론가 20명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한국 작가 1위로 선정된 것은 그런 이유일 것이다(『월간 art』 2001년 1월호).

굿 의례를 집전하는 종교인, 무당

〈무당 12〉는 화면 중앙에 붉은 전립, 하얀 얼굴, 파란 전복, 붉은 치마, 흰 속바지 등 색면들로 표현된 무당이 오른손에 부채 왼손에 방울을 들고 양 팔을 펴든 채 오른쪽으로 군청색 괴물을 왼발로 녹색 괴물을 밟아 누르고 있다. 부채 속에는 십장생을 그린 듯 해와 달, 산, 사슴 등이 있고, 방울에 달린 녹색, 노란색, 청색의 긴 천 조각이 휘날리며 화면을 가로지르는 운동감을 준다. 주인공인 무당을 가장 크게 그렸고 그 주변에 중요도에 따라 주대종소(主大從小)로 배치한 형상들은 이 무당이 모시는 여러 무신(巫神)들이란 것 같다. 무당의 좌우에는 촛대 위의 촛불이 있고 아래로는 오른쪽 석굴암 본존인 듯한 불두(佛頭)가, 왼쪽에 돼지머리, 밥, 과일, 쌀 등의 공양물이 있어 굿상을 차려놓고 한창 무속의 종교행위인 굿을 하는 장면이다.

불교와 함께 무속과 무당은 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소재이다.

무속에서 사용하는 부적을 확대해서 그림 속에 그려 넣기도 했고, 제주도의 무속 신앙 그림인 ‘내똥당 무신도’를 작품화하기도 했다.

박생광은 무당을 여러

구성으로 변주하며 여러 차례 대작으로 그렸는데 1980년 여의도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국가 주도의 전통성 회복 행사인 ‘국풍80’에서 김 금 화 (1931-2019) 무당이 맨발로 작두를 타며 굿을하는 광경을 본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사머니즘의



박생광 〈무당 12〉
1984년(81세), 종이에 먹과 채색
136×139cm, 개인 소장

종교적 주술성에 대한 매혹과 함께 김금화라는 대무당의 의례 행위에서 받은 영감이 무당 시리즈로 나타났을 것이다.

〈무당 12〉의 화면을 압도하는 강렬한 색채, 방대한 스케일, 자유 분방한 구성은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무속과 무속 종교인인 무당의 당당함을 현시하는 듯하다. 기층 종교였던 무속에 대한 복권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의지해 위로 받았던 역사적 민중들의 고단한 삶 또한 팔순에 나이에 이른 박생광이 자신의 예술적 서사로 대변해 주는 듯하다.

〈무당 12〉는 작고하기 전 해인 1984년 작품으로 한글로 “사천삼백 열일곱해 박생광”으로 쓰고 한글인장 〈박생광그대로〉를 찍었다. ‘그대로’는 1977년 일본에서 귀국한 후 그간 사용하던 내고(乃古) 대신 사용한 한글 호이다. 당시 많은 예술가, 학자들이 호를 사용했지만 대부분 한자 호였고 한글 호는 한글서예가나 한글학자들이 사용할 뿐이었다. 화가인 박생광이 1977년이라는 시기에 한글 호를 사용한 것은 매우 선구적인 일이었다.

벽사의 호랑이와 부귀와 장수를 기원하는 석모란

6폭이 이어진 연속 병풍 양식의 대규모 화폭에 그려진 〈호랑이와 모란〉은 민화와 공화에서 그려지는 여러 소재들이 박생광의 창의적 융합을 통해 한 화면에서 조화를 이루었다. 황색, 청색, 홍색, 녹색, 백색, 흑색 등 짙은 원색과 붉은 윤곽선이 박생광 고유의 채색법과 형태 묘사법을 보여준다. 가운데의 모란과 괴석은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궁궐 병풍인 ‘궁모란도’에서 왔고, 왼쪽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두 마리 까치를 올려다보는 모습으로 민화 ‘까치호랑이’에 나왔는데 벽사와 길상을 상징한다. 오른쪽은 새끼 두 마리와 같이 그려진 암호랑이로 호랑이가족을 좌우로 그렸다. 화면 위쪽의 구름 문양 사이로 보이는 빨간 해와 파란 달은 그가 1970년대부터 그렸던 ‘십장생도’에서 나왔다. 박생광은 상서로운 뜻을 가진 전통적인 여러 도상을 결합시켜 나쁜 것을 막고 부귀와 장수를 기원하는 화려한 화면을 창의적으로 완성했다.

둘째 폭 아래쪽에 박생광의 독특한 낙관이 있는데 먹선으로 형태를 그린 초록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 놓고 그 안에 날짜와 서명과 인장을 모두 넣었다. 날짜는 단기를 한글로 작게 쓰고 그 아래에 큰 글자로 이름을 썼으며 그 왼쪽에 한글인장 〈박생광그대로〉를 찍었다. 굵은 주홍색 윤곽선으로 형태를 나타내는 디자인적인 그림 형식과 일맥상통하는 그의 고유한 서명이다. 1971년 범어사의 묵어 드로잉에서 보았던 나무물고기가 이렇게 그의 독특한 낙관 방식의 형태로 결실된 것이다.



박생광 〈호랑이와 모란〉 1984년(81세), 종이에 먹과 채색, 137×256cm, 개인 소장

〈호랑이와 모란〉을 보면 색채가 갖는 조형요소로서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라는 힘이 조선시대뿐 아니라 20세기까지도 미술에서 매우 억눌렸으며 색채를 무시하려고 두려워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만약 20세기 한국 미술에서 색채의 아름다움을 창조적으로 자기 화한 박생광의 그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허전하고 부끄러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색채의 생명력이 살아 있는 아름다운 채색화를 통해 박생광은 불교와 무속의 종교적 이미지, 역사적 인물, 민화적 모티브 등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양식을 완성했다.

20세기 한국화 분야 작가들 가운데 박생광과 동갑인 1904년생 이응노, 김용준이 함께 떠오른다. 이들이 광복을 맞았을 때 42세의 나이였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뿌리에서부터 단절시키고 바탕조차 왜곡하고 우리의 말을 말살하며 일본식으로 이름까지 바꾸게 했던 일제 군국주의의 ‘학교’에서 배우고 자라 화가가 된 그들은 이다. 우리의 어떤 전통도 제대로 배울 수 없었고, 가치 부여를 할 수 없던 시대에 자란 그들이다. 의미 있는 한 명의 화가가 탄생하기란 시대가 어떠하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들이 극복해낸 암흑은 어느 시대보다 짙었다.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아간 이들의 행로는 각각 달랐다. 박생광은 70대 후반에 이르러 민족의 역사와 민중의 서사를 강렬한 색채를 중심으로 하는 자신의 양식으로 완성했으며, 서양 화가였던 김용준은 우리 미술의 ‘광채 나는 전통’을 자각하며 한국 미술사 연구와 함께 동양화로 전향하여 문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목축화가로 출발해 유럽으로 진출한 이응노는 지필묵이라는 재료의 표현성을 역동적인 인간상으로 극대화하여 현대사를 은유적으로 담아냈다. 이들은 모두 한국적 미술 상황과 한국화의 특수성 속에서 동아시아 미술로서의 보편성을 이루었다. 이들의 성취는 ‘한국인인 화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성찰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다.

“역사를 떠난 민족은 없다. 전통을 떠난 민족예술은 없다. 모든 민족예술은 그 민족 전통 위에 있다.” 박생광이 써놓았던 글이다.

커뮤니티 아트 9

참여예술과 비판적 예술,
그리고 커뮤니티 아트

이강민

울산미술연구소'봄'대표/울산대겸임교수

지난 호에서 우리는 커뮤니티 아트가 소외된 공동체의 권리라는 정치적 짐을 벗어버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부작용에 대한 안전망(치료주의) 예술인 참여예술로 대체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비판적 예술 역시 참여예술이 사회적 불평등이나 불만과 같은 정치적 문제를 예술에 대한 참여를 통해 희석시킨다고 비판한다. 이번 호에서는 비판적 예술의 관점에서 참여예술을 살펴봄으로써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지도를 좀 더 명료하게 그려보도록 한다.

참여예술(engagement arts)은
비판적 예술이다

참여예술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예술은 현실과 무관하다'는 예술지상주의와는 달리 사회적 현상과 그 현상을 발생시킨 구조에 대해 시비(是非)를 가리고자 하는 비판적 예술이다.

1945년 해방 후,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북으로 분단 된다. 1950년 한국전쟁은 우리 사회를 '친일청산, 통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조차 빨갱이로 모는' 극심한 사상 대립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상대립은 문화예술계도 피할 수 없었다. 대표적인 논쟁은 1960년대 벌어진 순수·참여문학논쟁이다. 이 논쟁은 1960년대 4·19 혁명에 충격을 받은 김우종이 '그동안 지배적인 순수문학이 현실과 민중의 삶을 외면했다'(동아일보, 1963.8.7.)고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이형기는 '순수와 참여 논쟁은 해방을 맞이하면서 끝났다'(『현대문학』 2월호, 1964)고 하면서 문학의 순수성을 주장했다.

이 두 사람의 주장에서 보듯이 순수예술은 예술의 목적과 기능이 예술 그 자체에 있다고 주장하는 예술이고, 참여예술은 예술이란 예술가가 현실에 대한 느낌을 반영(표현)하는 예술이다. 이처럼 순수예술과 참여예술의 경계는 현실에 대한 참여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참여예술은 비단 1960년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신라 처용가나 조선 시대에 민화(民畵)와 탈춤, 일제강점기 가요와 1980년대 민중미술(판화와 걸개그림), 민중가요, 노동시(詩, poetry) 같은 예술은 역병 퇴치에 관한 기원, 부패한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반일민족해방을 위한 투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모순에 대한 현실 참여예술이다. (그림1, 그림2, 그림3)

이렇게 보면, '순수참여논쟁이 해방을 맞으면서 끝났다'는 주장은 어쩌면 예술이라는 온실 안에 숨어서, 혹독한 현실의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마른자리만 찾아가려는 기회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참여예술이
비판적 예술은 아니다

그런데 모든 참여예술이 비판적 예술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참여예술, 즉 예술의 재료가 인간과 사회이고, 자연을 소재로 한다고 해도 인간의 감정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이 현실에 관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참여예술은 부당한 현실을



그림1) 〈호작도〉, 백수의 왕 호랑이와 상스러운 새 까치를 통해 한해의 액운을 막아내고자 한 민중들의 바람이 잘 드러난다. 민화는 조선후기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민중들의 예술이 부흥 하던 시기, 사대부들의 세화(歲畵)를 변형하여 그림. 민화는 사대부들의 규범을 완전히 파괴 하는 과거, 풍자, 해학이 넘치는 민중적 미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출처 ▶ <https://t1.daumcdn.net/cfile/blog/14136C184BCFF8BD60> (2020.11.8, 검색)



그림2) 〈하회탈춤〉 민중들의 가면극, 조선후기 신분제도가 붕괴되면서, 지배적 질서(양반과 승려, 그리고 남성우월주의)를 향한 풍자와 해학을 통해 비판, 민중의식을 강화하던 민중연희. 탈춤은 판소리, 민화, 풍물과 함께 조선후기 민중예술 대표 장르, 1970년대 학생운동에서 권위적인 사회 비판을 위해 부활하였고, 이후 마당극운동과 마당놀이로 발전해왔다.

출처 ▶ http://www.hahoe.or.kr/coding/sub3/images/s1_img1.jpg (2020.11.8, 검색)



그림3) 오윤, 〈칼노래〉, 광목에 묵판화, 채색, 47 x 31.6cm, 연도 미상. (사진=가나아트) 오윤은 1960년대 대학가 문화운동과 1980년대 민중 미술 부흥기를 이끈 인물. 오윤의 이 작품은 동학 창시자 최제우의 칼노래를 표현한 것으로, 판화의 칼 맛이 줄 수 있는 굵고 날카로운 선들은 세상을 만들고, 사악한 것 들을 소멸하는 민중들의 역동적 힘을 잘 드러내준다. 2016년 오윤 30주기

전시회에서 이 그림은 4천8백만 원에 경매되었다. 이제 민중미술은 재야가 아니라 주류 예술로 인정된다. 1980년대 민중미술은 두 개의 그룹이 이끌 었는데 '현실과 발언'이 예술가 중심의 단체였다면, '미술동인 두령'은 민중들이 참여하는 예술, 즉 커뮤니티 아트였다.

출처 ▶ http://weekly.cnbnews.com/data/photos/20160624/art_1466075118.jpg (2020.11.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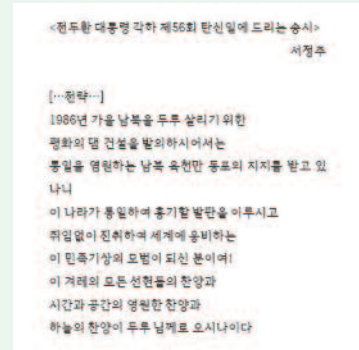


그림4) 미당 서정주, 〈전두환 대통령 각하 제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 서정주는 일제강점기 한국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일본에 협력했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군사쿠데타,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탄압에 지지하는 예술 활동을 했다.

출처 ▶ <https://qq9447.tistory.com/25> [이 풍진 세상에]



그림5) 리크릿 티라바니자, 〈무제(무료)〉 untitled(Free), 1992. 티라 바니자의 작품은 '카레'나 '팟타이' 같은 요리를 만들어 전시장의 관객에게 제공하는데, 이때 관객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작품이나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cccolor/221397956223> (2020.11.8, 검색)



그림6) TV드라마 〈SKY캐슬〉의 한 장면, 대한민국 0.1% 상류층들이 왕국의 주인으로서 자녀들을 왕자로 만들기 위한 코미디 드라마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57> (2020.11.8, 검색)

옹호하거나 은폐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그림 4)

예컨대, 서정주는 자신의 친일·부역 예술행위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일제의 압력으로부터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지만, 그 진위를 떠나서, 친일예술 역시 현실에 개입한 참여 예술이다.

이처럼 어떤 참여예술은 현실의 부정의(不正義, injustice)를 은폐하거나 침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의 참여예술도 비판적 예술이라 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비판적 예술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 그 이유는 비록 비판의 사전적 용어가 혈통은 비난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을 떠나 객관적인 시비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현실 참여를 비판적 예술의 기준으로 한다면, 부정의를 찬양하는 예술마저도 비판적 예술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순수성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식으로 말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악(惡, evil)'에 부역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판적 예술은 현실에 대한 참여 여부가 아니라 정의(正義, justice)와 평등, 포용, 다양성 등과 같은 관점, 즉 '누구에게 좋은가'라는 가치(윤리학)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참여예술(participatory arts)에 대한 비판

워릭(Warwick)대학교 교수인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은 참여 예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다.¹⁾ 논의의 전개를 위해 비숍이 비판하는 참여예술(대표적으로 관계미술)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자.

퍼포먼스 아트의 연장선에 있는 관계미술(Relational Art)은 프랑스 큐레이터인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가 1990년대에 주창한 미술용어로서 동시대 미술에서 가장 강력한 비평용어가 되었다.

니콜라 부리오는 오늘날 미술의 지배적인 특징을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미술이 '신자유주의에 직접적인 대응물'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예술 작품에 대한 경험은 엄마의 '도시락'처럼 작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관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경험이다. 관계미술은 참여자들의 이질적인 사고와 행동이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실험실(laboratory)이자 새로운 의미를 창출

1) 관계미술, 대화미술, 사회참여예술, 커뮤니티 아트 등이 모두 예술가와 참여자가 공동으로 만드는 예술이라는 차원에서 참여예술로 통칭해서 쓴다.

하는 플랫폼(platform)이며,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로 인한 인간 소외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공론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5)

이에 대해 비숍은 "관계미술이 관객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관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계'를 만들지 않는 예술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비숍의 질문은 관계미술의 결과가 물질(object)이 아니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다. 비숍이 보기에 관계미술은 단지 관계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 관계의 '질'(quality)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

비숍은 관객들의 참여에서 만들어지는 관계가 마냥 좋을 수많은 없다고 말한다. 오늘날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현실은 더욱더 그러하다. 예컨대 한때 밥상머리를 진동시켰던 TV드라마 <SKY캐슬>에서 대한민국 0.1%는 똑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며, 생각하는 것 자체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림 6)

이러한 현실에서 관계미술이 단지 미술관에서 무료식사를 나눠 먹으면서 얻어지는 임시적이고 마이크로(micro)한 공동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저항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부리오는 실험실은 여가와 오락을 위한 공간, 즉 새로운 시장(market)이 될 뿐이다. (그림 7) 비숍의 비판은 예술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술을 비판한 것이다.

참여예술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아트

비판적 예술의 관점에서 본 참여예술은, 예술이 현실의 부정의를 비판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참여(engagement & participation)를 통해 예술을 오락상품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적 예술은 이러한 참여가 사람들을 사색할 수 없게 만들고, 현실을 은폐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의 영역에 참여예술이 문화예술교육과 공공 미술 정책에 도입되었다. 전통적인 예술교육은 예술가와 수강생 간의 일방적인 기능전수로 이해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적 기능전수 보다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자기 발견, 공동체 문화개발과 협력, 사회개선 등으로 제시되었다. 예술과 교육의 만남을 예술교육이라 하지 않고 굳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한 것은 예술을 보다 넓은 범주의 문화로 접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예술이 커뮤니티 아트의 소외된 공동체에 대한 권한부여보다 사회적 개선과 문화경제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참여예술의 이러한 실용주의는 국가의 복지 서비스 책임을 공동체에 전가하고, 공동체가 생산하는 사회적 자본을 특정한 사람들이 사유화(私有化, privatisation)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참여가 무료노동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공공미술, '장소 만들기'(place-making)가 땅값을 올려서 세입자들이 쫓겨난다거나 공동체의 공적 자산인 이야기(story)가 책으로 출간되어 어떤 출판사 개인 자산이 되는 경우이다. 정작 사회적 자본(장소성과 이야기)을 만드는데 기여한 카페나 공방 사장님들은 쫓겨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건물주가 이득을 보는 것과 같다. (그림 8)

참여예술이 불편한 현실을 은폐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작가와 당국의 필요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의한 예술이 되어야 한다. 권한은 공동체가 자신의 필요를 선택하는 것이다.

영국의 커뮤니티 아트는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CDP, 1970)를 만나 큰 힘을 얻게 되었는데, CDP는 소외된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공동체의 '자조'(self-help) 역량을 결합한 아이디어였다. 즉 CDP는 국가권력을 시민에게 나누어 주는 참여(권한부여) 정책이었던 것이다.

커뮤니티 아트와 마찬가지로 CDP는 경기침체로 인해 1978년에 종료된다. CDP는 실패했지만, 주민자치 권한과 역량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런데 신노동당 정부 집권으로 부활한 CDP Program은 CDP를 '지난날의 실수'라고 평가하며, 권한부여를 신중하게 생각한다.

이곳이 국가가 그어 놓은 시민권의 분할선이다. 이 한계선은 권한 없는 참여다. (그림 9)

결국 비판적 예술의 관점에서 바라본 참여예술에 대한 가치 기준은 오락상품이나 지역개선과 같은 효율성보다 공동체(지역사회)에 대한 권한 부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권한 부여를 목적으로 한 커뮤니티 아트는 참여예술과 비판적 예술을 이어주는 교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커뮤니티 아트의 핵심가치인 공동체 권한부여, 공동저자성, 공동자산화는 참여예술 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사용이 점점 확장되는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에서 주민활동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



그림7> 산티아고 시에라 <6명의 고용된 사람에게 새겨진 250센티미터 길이의 문신 250cm Line Tattooed on Six Paid People>, 에스파시오 아굴티나도르, 하바나, 1999. 시에라의 작업은 티라바니자의 무료 식사와는 다르게, 작품에 참여한 퍼포머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출처 ▶ <http://tigersprung.org/?p=1406> (2020.11.8, 검색)



그림8> 11일 오전 이태원 경리단길 빈 점포 모습. / 사진=한다원 기자 한때 핫플레이스로 불리던 이태원 경리단길. 다양한 볼거리와 젊은 감각의 아이디어 가게로 인해 관광객과 소비자를 끌었지만 높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상인들이 떠나면서, 빈 점포가 줄지어 생겨나고 있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2020.11.8, 검색)



그림9> 아른슈타인의 <참여의 사다리>, S. R. Arnstein,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AIP, Vol. 35, No. 4, 1969, pp 216-224. 아른슈타인은 시민 참여의 수준을 8단계로 나눈다. 1-2단계는 참여가 아닌 동원, 3-6단계는 형식적 참여, 버스 승차처럼 토근식 참여, 7-9단계부터 진정한 참여의 수준이 결정된다.

출처 ▶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35258> (2020.11.8, 검색)

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19 | 박지운
오페라 지휘자 / 오페라 작곡가

‘들소’

그 언제였던가... ‘이문열’의 단편소설 중 ‘들소’라는 작품을 읽고 내 사고는 한동안 마비를 일으킨 적이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 등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구석기 문명의 상징물 중 하나인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의 ‘소 그림’이란 단순하고도 미개한 동굴 속 벽화 하나가 작가의 영감에 조그마한 불씨를 선사하고, 작가는 이 동굴벽화를 가지고 급기야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계급사회로 변천하는 과정을 지독히도 정교하게 그려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영감의 신선함과, 그것을 변용과 확장으로 추적해나가는 솜씨는 압권 중 압권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1.

이 소설에는 원시 공동체사회를 살아가는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용맹’과 ‘기상’이 ‘턱없이 부족한 한 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결국 경쟁에서 탈락하여 동굴에 거하며 동굴 벽에다가 한낱 미신적 역할 일수밖에 없는 소 그림이나 그리고, 또는 동료들의 무기나 손질해주는 등, 무력감에 빠진 끝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자기와는 정 반대편의 기질을 가진, 소위 약삭빠르고 잘 나가는 용사의 처지가 되는 것을 숨죽이며 바라보아야만 하는 운명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농경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파생되는 계급사회에 그는 본능적으로 저항하다가 원시구석기시대와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예술가적 감흥에 사로잡히며 다시 동굴로 돌아가서 알타미라 벽화의 소 그림을 그려낸다고 작가는 주장하고 있다.

2.

주인공은 말한다. 누구나 다 자기가 열망하는 소가 있다고...

“어떤 이는 권력의 소를 좇고, 다른 이는 권력자를 좇으면서 생산되는 잉여물을 자기의 소로 삼으며, 어떤 이는 안정과 평안만을 자기의 소로 삼는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소를 좇고 있는가? 그런데 내 안에서는 왜 이리 남들이 흔히 말하는 소가 아닌, 도무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소가 이렇게 나를 짓누른단 말인가?”

그런데 그 짝사랑하는 여자가 말한다.

“나도 당신이 나를 끔찍이 좋아하고 있음을 느껴왔어요.

하지만 난 당신이 좇고 있는 소는 결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 소를 좇는 이의 운명이 너무나도 가혹하리라는 것을 직감했기에 난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안정과 평안의 소를 좇는 평범한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에 체념의 기숨을 부여잡고 돌아서는 남자의 귓가에 이러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물론 그 소를 잡을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소일게 분명하지만요”

결국 이 남자는 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을 ‘예술가적 소명’이라는 소를 그려내기 위해 다시 그 원시의 동굴로 돌아가 알타미라의 벽화를 그려내게 되고, 그 벽화는 1만4천500년이 지난 20세기에 와서야 스페인에서 발견 되는 것이다.

더욱이 구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걸출한 작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3.

항상 그러했지만 원시공동체 사회를 벗어난 사회와 음악을 포함한 예술계, 특히 우리나라 음악계는 늘 소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소란스러움의 모티브가 원시시대의 예술가적 소명의식에 의거한 논쟁이 아니라 예술을 도구로 사용한 이들의 권력지향적인 싸움일 경우가 많기에 더욱 불쌍스럽다.

필자가 창출한 단어 중 ‘문화적 문명화’란 말이 있다. 이것은 ‘문화’란 말만 존재할 뿐이지 그 참된 의미가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너무나 요원한 사회를 지칭하는 필자의 한숨 섞인 자조적 표현이다.

하지만 나 또한 어떡하랴?

이 사회를 살아가기에 나도 나만의 ‘소’가 있고, 그 소가 항상 순수 무결한 예술가적 소명만이 아닌 것을 자각할 때마다 캄캄캄 짝 놀라는 것을...

4.

우리나라에 수입 되는 소위 '명품' 의류나, 가방, 선글라스 등은 주로 유럽에서 수입되는데, 그 중 특히 이탈리아가 압도적으로 많다.

베르사체, 미소니, 아르마니, 구치, 프라다, 발렌티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명품'들이 우리네 백화점과 의류매장들을 점령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필자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학하던 시절 초창기(1994), 로마생활 첫 지하철 시승식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는데 지하철 입구에 차려놓은 노점상에서 여인들이 가판대에 마구 흐트러져 있는 속옷들을 자기 몸에 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멀쩡히 생긴 미모(?)의 아가씨, 이춤마들이 남들의 시선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팬티, 브래지어 등의 치수와 색상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모습에 당시 필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다.

몇 년 전 언론에 발표된 각 나라마다의 중산층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

- | | |
|----------------------|--------------------------|
| 1. 외국어를 하나 이상 할 수 있다 | 2.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다 |
| 3.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다 | 4.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요리를 가진다. |
| 5. 공분(公憤)에 의연히 참여할 것 | 6.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

〈영국의 중산층 기준〉

- | | |
|-------------------|-----------------------|
| 1. 페어플레이를 할 것 | 2.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
| 3.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 4.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

〈한국의 중산층 기준〉

- | | |
|--------------------------|-------------------|
| 1.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 2.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
| 3. 2,000 CC급 이상의 중형차 | 4.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
| 5. 해외여행 1년에 한차례 이상 다닐 것. | |

한때 잘 나갔으나 그 후의 활동부진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은 주기적으로 우리의 인터넷을 뒤덮는다.

이렇듯 하루 42명이 자살로 세상을 마감하는 사회가 내가 숨 쉬고 있는 한국 땅이라니...

도대체 그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그렇게 게으르고 가난하여 걸핏하면 'IMF 단골손님'처럼 인식되고 있는 그리스보다도 9배나 더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의 3대 목표는 mangiare(먹다), cantare(노래하다), amare(사랑하다)라고 외치는 '준 경제위기국가' 이탈리아의 자살률은 우리나라의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다?

5.

그것은 우리 보통 서민들이 자기가 명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서울대 보내고 대형 아파트에 살며 고급승용차를 굴리면 아무런 이유 없이 고개를 꺾듯이 들고 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이자 동력원인 중산층의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기준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스스로 즐기는 스포츠와 악기 하나씩만 있다면, 그리고 자신만의 주 특기 요리가 하나씩만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각박한 사회가 되었으며, 과연 사악한 코로나가 우리를 침범했을까?

4차산업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시대를 맞아 인간만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과 '연주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제한되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비인간적인 사회,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 의해 지배받게 되고 우리들은 언젠가는 또다시 결국 원시사회로 회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마지막 빙하기 이전인 1만 4천 500년 전 그 동굴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리고 만약 아직도 자기만의 소를 그리고 있는 그 청년을 만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미학의 눈 - 작품해석과 감상 9

말하지 못한 것들

남인숙

미학박사 / 미술평론

1. 사각의 원

너무 많은 말을 하는데, 결국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너무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결국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넘쳐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하지 못한 말이 있다. 뚫어 넘치는 찌개처럼 이미지가 들끓어 캔버스가 곧 넘칠 것 같은 작품이 있다. 이솟별 작가의 작품이 그런 작품이다. 가면 쓴 인물이 화면을 가득 메운 작품도 있지만, 이솟별 작품에는 아주 복잡한 이미지와 이야기 단편들로 가득하다. 붓질, 드로잉의 흘리기, 구성의 정교함과 대범한 스케일이 매우 좋으며 무엇보다 현실인 듯 비현실인 듯 애매한 색감으로 장악된 작품의 감각적 매력이 뛰어나다. 왕창 쏟아지는 감각적인 이미지와 군데군데 묻어나는 위트와 판타지는 작품의 매력 이상으로, 그리고 그 너머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휘어진 자

꽃으로 가린 눈 때문에 표정을 알 수 없는 인물 (<휘어진 자 The Bent Man>)은 제스처로 봐서 절박함이 있는 것도 같지만, 감춰진 시선은 절박감의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장치는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상상을 어정쩡하고 미진하게 만들면서 '무엇인가 다하지 못한 감각'을 강하게 각인시킨다. '서술되지 않은(unnarrated)' 작품들은 이런 여운을 이미지에 담아낸다. 작품을 아주 잘 감상한다고 해서 서술되지 않은(un-, narrated) 것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찾아낼 수 없다. 의미의 파악은 고사하고 작품 앞에서 '아직 서술되지 않은' 것이 무엇

인지 계속 머뭇거리며 종결되지 못한 소통의 채널에 매달려 있게 된다. 토끼가면, 꽃으로 가린 시선, 트레이닝복, 쏟아지고 있는 살덩이, 번들거리는 나팔, 양 볼이 터질 듯이 나팔을 불어대는 인물, 힘껏 나팔을 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익숙한 풍경 속에서 감지되는 이상 징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심상치 않은 알 수 없는 것이 진행됨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화면 가득 스며든 초록색은 인공적이고 사이버 같은 색조로 이상한 전조를 예감하게 한다. 이러한 작품을 마주할 때 인상은 마치 ‘최후의 심판’과도 같은 장엄한 맛이 풍긴다. 이솟별 작가의 작품은 화려한 수사가 만개하면서도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 같다. 다 하지 못한 말의 틈(구멍)을 이미지에 구조화하여 ‘말함과 말 못함/ 서술하고자 함과 [그럼에도] 서술되지 않음/ 기능과 불가능/ 만개(滿開)와 텅 빔’ 사이의 긴장감이 이상한 거리감을 만들고 있다. 이상한 거리감, 이것이 현대식 장엄함을 자아내는 원인인 것 같다.



클라인의 향아리

트레이닝 의상을 한 기이한 추리닝맨과 사실적인 이미지들, 복잡한 장면 사이로 흐르는 살덩어리와 형상. 익숙한데도 어딘가 낯설어 어긋나버리는 감정과 형상의 과잉 속에서 우리는 현장에 없는 ‘다른 장면’을 생각하게 된다. 특히 추리닝맨의 제스처는 수수께끼 자체이다. 꽃으로 눈 먼 추리닝맨(〈휘어진 자〉), 태엽있는 추리닝맨(〈창세기〉), 변형된 토끼 추리닝맨(〈라스트맨1〉), 3인조 추리닝맨(〈보충물〉) 등등. 이 제스처는 관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 하라고 요구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거리게 할 뿐이다. 낯선 풍경의 병치에서 보이 듯, 장치가 강요하는 ‘다른 장면’에 대한 상상은 의식에 드러나지 못한 무의식의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초현실주의자들이 구현하고자 한 ‘초현실’일 것이다. 초현실주의의 시선으로 작품을 보자면, 이솟별의 작품에도 의식으로는 확정될 수 없는 흔들리는 이미지가 등장하고(〈라스트맨2〉), 연결되지 않는 이미지의 우연적인 조합(〈클라인의 병〉, 〈휘어진 자〉 등등) 등이 화면을 이끌고 있다.

작품에 동원되는 이미지들은 주로 인터넷 서핑을 통해 수집된다. 이미지 서핑의 출발점은 우연히 주목하게 된 글자 혹은 문자이다. 작품의 제목으로 쓰인 이 출발점, 문자를 중심으로 수집된 이미지를 화면에 배치하고 구성을 완결 하는 것이다. 즉 ‘검색어’ 연관 이미지를 수집 배열하여 이미지 성좌(星座)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지 성좌를 만들게 한 문자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점은 뒤에서 따라가 보자.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은 이미지 성좌 앞에서 문득 문득 분리되는 ‘단절’을 발견하며 소통을 이어간다. 그런데 이

소통이란 것이 사실상 불완전하고 나아가 소통에 실패하는 그림보기의 연속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우리에게 '다른 장면'을 상상하도록 하여 그것을 통해 현실의 허구성을 제시하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의 주장처럼 현실은 매끄러운 연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어긋나있고 클라인의 병처럼 매우지 못하는 구멍을 언제나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깡은 어긋난 틈(구멍)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해석하려는)욕망의 변증법을 불가능한 '사각 원'으로 부른 바 있다.

2. 추리닝맨

따라서 화면위에 제시된 이미지들은 수집의 출발점인 작품 제목(글자, 문자)과 연관을 갖지만 매끄러운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되지 않는다. 그 대신 주요 도상을 통해 '서술되지 않은' 작품들에 마치 일관성을 지니는 것처럼 위장한다. 일관성을 가장하기 위해 등장하는 이미지가 '추리닝맨(토끼 혹은 인간 얼굴)', '살덩이'이다. 이 도상은 비닐봉지처럼 하잘 것 없고 우연적이면서 소음처럼 무의미하지만 작품마다 고정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마치 어떤 중대한 의미가 반복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추리닝맨(토끼가면이든 아니든)은 특정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작품에 대한 질문만 증폭시키고 있다. 그의 시선은 화면의 다른 사건을 향하든가 아니면 화면 바깥 어딘가를 향하면서 관객의 시선도 같이 이끌고 다닌다. 추리닝맨이 이끌고 간 그곳은 화면상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다른 지점'이며, 추리닝맨은 '고정된 의미'를 지시하지 않는다. 추리닝맨은 하나의 표식, 라벨과 같은 것으로 '그냥 기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추리닝맨은 작품에서 감각적인 매력과 일관성을 주도하는 매우 중요한 도상이며 동시에 이질적이면서 화면 속에 통합되지 않는 잉여분을 자처하는 이미지이다. 공중에 떠있기도 하고, 토끼모습을 하고, 태엽 자동인형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살덩이를 쏟아 내거나 3인조 개그맨 같은 위트와 재치로 등장하기도 한다.

3. 라스트맨과 문자

작품의 제목으로도 활용된 'ラスト맨'은 세계에 대해 피상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의 유형이다. 작품 감상에서도 라스트맨의 유형은 존재하는데, 맥락을 보지 못한다든가,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편견으로 인해 자신의 고집 속에 갇히는 유형 등이다. 사실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도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쨌든 작품에 등장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너무 무심하고 표피적인 인상에 고정되는 사람이 'ラスト맨'이 아닐까 한다. 라스트맨은 나와 타자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의 외부를 '바깥'이라고 한다면 이 '바깥'을 '초월적인 것'으로 그리고 '타자'로 이해할 수 있다. 자아 밖의 일에 대해 귀찮아하는 자를 라스트맨이라 할 수 있고 이 라스트맨은 결국 타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타자에 대해 불감증에 걸린 자라고 할 수 있다.

ラスト맨과 달리 화면 바깥을 향해 관심을 보이는 추리닝맨(《ラスト맨1,2》)은 언젠가 외부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 있음을 말하려는 듯하다. 막 태어난 아기에게 말을 걸 때처럼, 추리닝맨은 외부에서 온 목소리에 대한 단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리닝맨은 타자의



ラスト맨1

목소리, 나에게 각인된 문자의 출현을 지시한다. 작가는 추리닝맨의 제스처를 통해 바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시각화하고 이로써 우리를 호명했던 처음의 목소리가 추리닝맨을 통해 작품 속에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지 바깥에 있는 ‘제목’은 제목을 이루는 문자의 공명을 통해 수집된 이미지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여운을 남기며 대표이미지를 통해 작품의 화면을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셋별의 작품은 우리를 부르는 타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작업의적 자유 / 보충물우)

잠시 제목을 눈으로 보고 또 소리 내어 읽어보자. 〈휘어진 자〉, 〈라스트 맨〉, 〈보충물〉, 〈임의적 자유〉, 〈창세기〉, 〈클라인의 항아리〉. 이 소리에서 시작되어 연관된 이미지를 모아 구성된 것이 작품 속의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부르는 목소리’와 ‘기입된 문자’는 여러 이미지의 원천이다. 언젠가 우리와 우연히 만나게 되서 우리에게 기입된 문자가 문득 회상되어 그것을 중심으로 연관검색어를 찾아가듯 관련이미지를 수집하는 모습은 우리가 ‘나의 욕망’을 찾아 나서는 모습과 닮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타자의 목소리가 명령하는 것에 사로잡혀 수집의 열망 속에서 자신의 욕망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셋별 작품에서 ‘제목과 작품의 관계’ 그리고 ‘문자와 이미지와의 관계’는 우리 욕망이 발현되고 그 욕망을 쫓게 한 원인을 추적하고 타자의 목소리와 함께 전개되는 욕망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려는 이셋별의 작품은 현실의 빈 곳에서 욕망의 단서를 찾는 정신분석의 풍경일지도 모른다. 풍경에 등장하는 토끼가면, 꽃 안대, 추리닝, 살덩어리가 만들어 내는 이야기, 미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이미지 사이사이에서 말의 우물처럼 놓여 있다.

※글에서 ‘제목, 문자, 글자, 목소리’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Arts & Story

뮤지컬 '고스트'

영화 사랑과 영혼을
무대에서 즐긴다

뮤지컬 '고스트'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

뮤지컬 평론가

jwon@sch.ac.kr





매사에 자신감이 늘 넘치는 샘은 젊은 은행가다. 연인이자 도예가인 몰리와 뉴욕의 근사한 아파트에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친 몰리는 샘에게 청혼을 하지만, 샘은 언제나처럼 “사랑해”라는 말에 “동감”이라는 말로만 대답한다. 몰리는 샘에게 조금은 서운해한다.

언제까지나 행복할 것 같던 두 사람에게 그러나 갑작스런 불행이 찾아온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샘이 어둠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괴한의 습격을 받아 명을 달리 하게 된 것이다. 숨을 거둔 샘을 안고 오열하는 몰리는 그러나 영혼이 된 샘이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샘은 자신의 장례식을 보며 죽음으로 인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저승으로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던 샘은 자신을 죽인 괴한이 몰리 또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다. 이제 영혼이 된 샘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연히 알게된 영매 오다메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화려한 전과를 자랑하는 사기꾼이라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죽음에 얹힌 거대한 음모를 인지하게 된다. 이제 남은 건 몰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사건의 내막을 알려야 한다는 것 뿐이다. 과연 영혼이 된 샘은 몰리를 지키고, 자신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 바로 뮤지컬 ‘고스트’의 즐거이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인기 영화는 늘 존재해 왔다. 1990년대 초반 최고의 화제작을 꼽으라면 단연코 ‘고스트(Ghost)’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사랑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불렸던 바로 그 흥행영화다. 남자 주인공 샘 역이었던 패트릭 스웨이지가 여주인공이었던 몰리 역의 데미 무어와 함께 원판위에 올려진 도자기를 돌리며 만들어내는 장면은 다양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수없이 패러디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물론 영상의 배경으로 쓰였던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노래 ‘언체인드 멜로디(Unchained Melody)’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며 사랑받았던 대표적인 영화음악중 하나다. 지난 2009년, 패트릭 스웨이지는 지병인 췌장암으로 우리 곁을 떠났지만, 아직도 그가 출연했던 영화들, 예를 들어 고스트나 더티 댄싱 등은 여전히 올드 영화팬들로부터 사랑받고 기억되는 명작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아직도 안방극장의 올드 무비 채널에서는 심심찮게 재방송되는 인기 레퍼토리의 하나다.

중장년층이라면 직배 파동 논란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의 사건들이다. 당시까지 관행과 달리가 영화는 국내 기획사가 아니라 원작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외국 회사 유아이피(UIP)가 직접 영화를 배급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우리나라



영화시장의 개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덕분에 우리나라 영화 관계자들의 반발도 엄청나게 거셌는데, 유명 영화 배우들이 시내 한 가운데에서 삭발을 하며 시위 퍼포먼스를 펼치는가 하면, 영화관에 뺨을 풀어놓겠다고 으박을 지르던 기억도 생생하다. 하지만 극장은 관객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객석 통로까지 들어찬 간이의자는 연일 만원 성시를 이뤘다. 영화 사랑과 영혼은 예기치않게 글로벌 시장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지닌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WTO 체제의 요즘 환경을 감안하며 되새겨보면 웃지못할 해프닝이기도 하지만, 그 시절을 떠올리면 늘 제일 먼저 생각나는 추억의 장면들이다.

바로 그 추억의 화제작이 뮤지컬로 환생했다. 요즘 공연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무비컬(영화를 의미하는 Movie와 무대용 콘텐츠인 Musical의 합성어)이다. 예전의 원작 영화를 기억하는 기성 세대들에겐 추억속 명장면들이 무대로 어찌 구현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라고 예외인 것은 아니다. 비록 영화를 모르는 요즘 세대라 하더라도 이미 대중성과 흥행성이 검증된 '재미난' 이야기를 다시 무대로 재연해냄으로써 더할나위 없는 흥미로운 대중문화속 산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도랑 치고 가재도 잡는' 요즘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공식의 전형적인 사례다.

흥미로운 점은 또 있다. 무대로 재구성된 이야기가 단순히 영화의 재연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그렇다. 많은 무비컬들이 그렇듯, 익숙하면서도 다시 새로운 해체와 재구성의 묘미를 심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앞서 잠시 언급한 도자기 찌이 그렇다. 이 영화의 대명사처럼

통하는 상징적인 명 장면이지만 무대에서는 그리 인상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통기타를 메고 나온 남자 주인공 샘이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같은 창법으로 사랑의 장난을 연인인 몰리에게 건네는 장면으로 재연된다. 영화의 솜사탕 같은 정서를 기대한 관객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식상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무대적으로 승화된 간접적인 표현인 셈이다. 물론 멜로디가 워낙 익숙한 탓인지 관객들은 그저 선을 하나만으로도 꽤나 만족한 미소를 띠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무대는 라이브로 연주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므로 뮤지컬을 통해 새삼 음악의 힘을 깨닫게 되는 멋진 체험의 순간이기도 하다.

뮤지컬이 처음 만들어진 곳은 축구로 유명한 영국의 맨체스터다. 지방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의 소비지점으로만 여기는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거리가 있어 제법 흥미롭다. 사실 문화상품을 만들어 테스트 마켓을 거치게 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도시의 시차가 굳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이지, 반드시 대도시의 상업시장에서 첫 삼을 땔 필요 조건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28일 맨체스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막을 올린 뮤지컬 버전의 '고스트'는 곧바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결국 5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 전회 매진을 이어가는 상큼한 흥행 기록을 일궈냈다. 결국 초연의 성공에 대한 소문은 곧바로 런던으로 공연장을 옮겨가게 만들었고, 웨스트엔드의 가장 중심가에 있는 피카딜리 극장에서 같은 해 6월 22일 막을 올려 장기상연의 흥행을 누리는 시발점을 만들어냈다. 영화의 재미는 2중의 합성 화면 - 그래서 자동차에 치이거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인물의 영혼이 자신의 시신을 다시



바라보며 경악을 하는 것과 같은 재미난 상상력이 담긴 영상 기법에 기인한다. 자연스레 뮤지컬 제작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영상이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의 여부였다. 제작진이 선택한 방식은 마술이다. 그러니까, 영상과 실사의 조화를 통한 이색적인 이미지의 구현이었던 셈이다. 예를 들어 마지막 이별을 하는 여인 물리는 실제 배우가 등장하고, 그녀를 떠나는 영혼 샘은 이미지(홀로그램과 같은 특수 영상)으로 구현을 하는 방식이다. 2차원의 평면이었던 영상이 무대라는 입체 공간에서 실감나게 재현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는 점 하나 만으로도 이 작품은 막을 올리자마자 마니아들 사이에 화자되는 인기를 누렸다. 최근 글로벌 흥행 뮤지컬들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의 비주얼적인 특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한 마법 가득한 공연이 됐다. 뮤지컬의 음악을 ‘듣는’ 재미 못지 않게 ‘보는’ 재미 역시 충실히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라 손꼽을만하다. 그렇다고 음악이 비주얼 효과에 비해 뒤쳐진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영화의 음악이 서정적인 선율의 복고풍 음악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면, 무대에서는 현대적인 리듬과 선율의 일종의 판타지같은 느낌이 관객들에게 오랜 뒷맛을 남겨준다. 뮤지컬 넘버들은 80~90년대 애니 레녹스와 함께 듀엣으로 활동하며 ‘스윗 드림스’, ‘후스 댓 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유리스믹스의 남자멤버 데이브 스튜와트와 마이클 잭슨의 ‘스릴리’, 알라니스 모리셋의 ‘잭드 리틀 필’ 등 역시 여러 히트곡들을 프로듀싱한 글렌 발라드가 공동으로 작곡했다. 무대에 등장하는 음악이 기존의 극적 구조뿐 아니라 음반만으로도 충분히 흥얼거리며 즐길 수 있는 완성도를 지니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영화가 ‘언체인드 멜로디’로 공전의 흥행을 기록했다면, 무대용 뮤지컬에서는 ‘여기 지금 이곳’이라는 의미의

‘히어 와이트 나우’가 주요 프로덕션 넘버로서의 기능한다. 경쾌한 리듬의 선율은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데이브 스튜와트와 글렌 발라드다운 친근함과 상쾌함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특히 무대와 함께 음반을 듣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발 박자를 맞추게 될 만큼 대중적인 선율과 매력을 담고 있다. 사실 뮤지컬을 재미있게 감상하는 방식 중에 음악과 함께 즐기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무대를 상상하며, 또 무대를 본 후라면 음악을 즐기며 머릿속에 펼쳐지는 배우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만끽해보면 이만한 즐거움도 흔치 않다.

지난 2013년에는 비영어권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지금 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무대의 특수효과는 당시 꽤나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원동력이 됐다. 올해 다시 막을 올린 2020년 우리말 앙코르 무대에선 스타급 배우들의 출연도 인상적이다. 탤런트로도 활약 중인 주원이 김우형, 김진욱과 함께 인간에서 영혼까지 연기해 내는 남자 주인공 샘으로, 가수 출신인 아이비와 사랑스런 뮤지컬 배우 박지연이 영혼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여자 주인공 물리로, 그리고 영매인 오다 메 브라운으로 판록의 최정원과 박준면이 등장한다. 이미 초연부터 무대를 지켜온 배우들도 많아 농익은 무대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지만, 골수 마니아 관객들은 ‘고스트’ 대신 ‘오다메 쇼’라고 부를 만큼 무대의 완급이 뛰어난 재미를 아낌없이 보여준다. 기회가 허락된다면 영상을 뛰어넘는 무대에서의 열연을 꼭 경험해보길 추천한다.

12 2020

공연가이드

12.02 (수) 19:30	[대관]	울산남구여성합창단 창단20주년 21회 정기연주회	소공연장	울산남구여성합창단
12.03 (목) 19:30	[대관]	2020년 제21회 국악한마당	소공연장	(사)한국국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
12.05 (토) 20:00	[대관]	합창뮤지컬 <놀부가 기가 막혀>	소공연장	글리앙상블
12.05 (토) 15:00 19:00	[기획]	뮤지컬 <루니틱>	대공연장	문화예술회관
12.06 (일) 17:30	[대관]	남구 구립교향악단 제76회 정기연주회 (시립합창단출연)	대공연장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12.06 (일) 17:00	[대관]	제24회 정기연주회 2020SOUNDWELL-홍보朴氏	소공연장	울산국악실내악단 소리샘
12.08 (화) 19:30	[합창]	기획공연 "헨델메시아"	대공연장	울산시립합창단
12.08 (화) 19:30	[대관]	소프라노 엘리사 최와 함께하는 클래식 여행(ITALIA)	소공연장	소프라노 엘리사 최
12.09 (수) 19:30	[기획]	뒤란 12.9.	소공연장	문화예술회관
12.10 (목) 19:00	[대관]	이척 춤 - 맥을 있다 in 11years	소공연장	김미지무용단
12.11 (금) 19:30	[대관]	김영미무용단 발칙한두루미 상상	소공연장	김영미무용단
12.12 (토) 16:00	[대관]	엄영진 판소리 정기연주 "뚝질산 도깨비"	소공연장	엄영진판소리국악연구회
12.11 (금) 20:00				
12.12 (토) 17:00	[기획]	디셈버 재즈앤월드뮤직	대공연장	문화예술회관
12.13 (일) 17:00				
12.13 (일) 17:00	[대관]	제7회 루체현악앙상블 정기연주회	소공연장	루체현악앙상블
12.15 (화) 19:30	[대관]	울산광역시레이디싱어즈 제7회 정기연주회	소공연장	울산광역시레이디싱어즈
12.16 (수) 19:30	[기획]	울산아카펠라콘서트(시립합창단출연)	대공연장	문화예술회관
12.16 (수) 19:00	[대관]	2020 우덕상 작곡발표회	소공연장	울산가곡사랑회
12.17 (목) 20:00	[대관]	김영희무용단 제5회 정기공연 "무룡산 시례"	소공연장	김영희무용단
12.20 (일) 19:00	[대관]	울산국제영화제 프레 페스티벌	소공연장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12.22 (화) 20:00	[대관]	론 브랜트의 "재즈 크리스마스" 20주년 울산 공연	대공연장	사)열린문화협회
12.22 (화) 11:00	[렉처]	전원경의 그림콘서트	소공연장	전시교육계
12.23 (수) 19:30	[기획]	뒤란 12. 23.	소공연장	문화예술회관
12.24 (목) 20:00	[교향]	제212회 정기연주회 마스터피스 4	대공연장	울산시립교향악단
12.24 (목) 18:00	[대관]	세계속의 울산 재즈	소공연장	모던시운즈
12.26 (토) 19:30	[대관]	2020년 타악퍼포먼스 새암 제7회 정기공연 "공명"	소공연장	타악퍼포먼스 새암
12.26 (토) 17:00	[기획]	이십세기 이승환+	대공연장	문화예술회관
12.27 (일) 17:00	[대관]	국악연주단 민들레 제12회 정기공연 "동락"	소공연장	국악연주단 민들레
12.30 (수) 19:30	[대관]	처용의 어울 소리소리 'Uhu'(Harmony)	소공연장	박선영무용단
12.31 (목) 22:30	[예술단]	희망의콘서트(가제)	대공연장	울산시립예술단

※ 공연일정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2020

전시가이드

9. 1. ~ 12. 9. (100일간)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장소 상설전시장(갤러리 씬)	주최 울산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참여 작가 기증작품 총 44점(미술, 사진 등) 전시
12. 2. ~ 12. 7. (6일간) 제2회 울산프로사진협회 회원전	장소 제1전시장	주최 울산프로사진협회	지역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이를 극복 함에 기여하고자 '다둥이' 중심의 가족사진을 테마로 한 울산 프로사진협회 작가 회원들의 사진작품 60여점 전시
제19회 울산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장소 제2전시장	주최 울산흑백사진연구회	우리 삶 속에서 우연히 인지하거나 경험한 수많은 사건들과 이름다운 추억으로 저장된 기억들 등 일상의 경험을 상기하는 흑백 아날로그 사진 80여점 전시
제12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장소 제3전시장	주최 포토라이프클럽	울산의 아름다운 생태환경 및 사계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사진작품 50여점 전시
12. 9. ~ 12. 14. (6일간) 제6회 울산전국서도회 교류전	장소 제1·2·3전시장	주최 울산서도회	전국 7개 도시 서예인들의 교류전으로 예술도시로서의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글, 한문, 문인화 등 서예작품 200여점 전시
제30회 현대사진동호회 회원전	장소 제4전시장	주최 현대사진동호회	현대사진동호회 회원 10명이 지난 1년간 촬영한 사진작품 50 여점 전시
12. 16. ~ 12. 20. (5일간) 제7회 한국현대창작예술협회전	장소 제1전시장	주최 한국현대창작예술협회	식물세밀화, 수채화, 꽃, 어반스케치, 민화, 현대미술 등 새롭고 흥미로운 기법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감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예술에 대한 문화향유를 위한 미술작품 150여점 전시
12. 16. ~ 12. 21. (6일간) 천에 핀 야생화전	장소 제2전시장	주최 천 아트	커텐, 방석, 쿠션 등에 그림을 그린 생활작품 60여점 전시
제17회 울산현대회화작가회 회원전	장소 제3전시장	주최 울산현대회화작가회	부제 'A Long Way 屢'으로 기획되는 전시로 은하수처럼 무한대로 놓인 길 위에 현실에 대한 사회적 현상과 시대의 흐름을 창작으로 재해석 현대회화 작품 50여점 전시
제16회 울산미협 문인화분과전	장소 제4전시장	주최 울산미협 문인화분과	울산미술협회 문인화분과 정기전으로 사군자, 화조도, 군방도 등 소속 작가 40명의 문인화 작품 40여점 전시
12. 23. ~ 12. 28. (6일간) 제20회 울산사생회 회원전	장소 제1전시장	주최 울산사생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특별기획전으로 회원들의 조별 합동화 작품과 울산 근교의 아름다운 풍경을 현장 스케치와 사생을 통해 그린 미술작품 60여점 전시
제49회 울산일요화가회 회원전	장소 제2전시장	주최 울산일요화가회	한 해 동안 울산일요화가회 회원들의 현장 스케치 활동 등을 통해 표현한 미술작품 40점 전시
제9회 울산젊은사진가협회 회원전	장소 제3전시장	주최 울산젊은사진가협회	타 예술매체 간의 동시다발적인 교류와 협업을 통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창작활동으로 예술의 유연성을 극대화한 사진작품 40여점 전시
제15회 울산현대한국화회 회원전	장소 제4전시장	주최 울산현대한국화회	울산 12경의 현장 스케치와 자연에서부터 인공적 도시의 소리까지 오감(五感)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요소들까지 포괄하는 미술작품 45점 전시

※ 전시일정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

12

2020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심터앞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1

6

- 남구 구립교향악단
제76회 정기연주회
17:30
- 제24회 정기연주회
2020 SOUNDWELL-홍보朴氏
17:00

7

8

- 기획공연 "헨델메시아"
19:30
- 소프라노 엘리사 최와 함께하는
클래식 여행(ITALIA)
19:30

13

- 디셈버 재즈앤월드뮤직
17:00
- 제7회 루체현악앙상블 정기연주회
17:00

14

15

- 울산광역시레이디싱어즈
제7회 정기연주회
19:30

20

- 울산국제영화제 프레 페스티벌
19:00

21

22

- 론 브랜트의 "재즈 크리스마스"
20주년 울산 공연
20:00
- 전원경의 그림콘서트
11:00

27

- 국악연주단 민들레
제12회 정기공연 "동락"
17:00

28

29

WED		THU		FRI		SAT	
2		3		4		5	
● 울산남구여성합창단 창단20주년 21회 정기연주회 19:30		● 2020년 제21회 국악한마당 19:30				● 합창뮤지컬 <놀부가 기가 막혀> 20:00 ● 뮤지컬 <루나틱> 15:00 19:00	
9		10		11		12	
● 뒤란 12.9. 19:30		● 이척 춤 - 맥을 있다 in 11years 19:00		● 김영미무용단 발칙한 두루미 상상 19:30 ● 디셈버 재즈앤월드뮤직 20:00		● 디셈버 재즈앤월드뮤직 17:00 ● 엄영진 판소리 정기연주 "뚝질산 도깨비" 16:00	
16		17		18		19	
● 울산아카펠라콘서트 19:30 ● 2020 우덕상 작곡발표회 19:00		● 김영희무용단 제5회 정기공연 "무룡산 시례" 20:00					
23		24		25		26	
● 뒤란 12.23. 19:30		● 제212회 정기연주회 마스터피스 4 20:00 ● 세계속의 울산 재즈 18:00				● 2020년 타악퍼포먼스 새암 제7회 정기공연 "공명" 19:30 ● 이십세기 이승환+ 17:00	
30		31					
● 차용의 어울 소리소리 'Ukul'(Harmony) 19:30		● 희망의콘서트(가제) 22:30					

전시일정

12

2020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제3전시장
- 제4전시장
- 갤러리 심
- 야외전시장

※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6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제2회 울산프로사진협회 회원전
- 제19회 울산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 제12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7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제2회 울산프로사진협회 회원전
- 제19회 울산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 제12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8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13

- 제6회 울산전국서도회 교류전
- 제30회 현대사진동호회 회원전

14

- 제6회 울산전국서도회 교류전
- 제30회 현대사진동호회 회원전

15

20

- 제7회 한국현대창작예술협회전
- 천에 핀 야생화전
- 제17회 울산현대회화작가회 회원전
- 제16회 울산미협 문인화분과전

21

- 천에 핀 야생화전
- 제17회 울산현대회화작가회 회원전
- 제16회 울산미협 문인화분과전

22

27

- 제20회 울산사생회 회원전
- 제49회 울산일요화가회 회원전
- 제9회 울산젊은사진가협회 회원전
- 제15회 울산현대한국화회 회원전

28

- 제20회 울산사생회 회원전
- 제49회 울산일요화가회 회원전
- 제9회 울산젊은사진가협회 회원전
- 제15회 울산현대한국화회 회원전

29

WED	THU	FRI	SAT
2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제2회 울산프로사진협회 회원전 ● 제19회 울산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 제12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3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제2회 울산프로사진협회 회원전 ● 제19회 울산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 제12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4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제2회 울산프로사진협회 회원전 ● 제19회 울산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 제12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5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제2회 울산프로사진협회 회원전 ● 제19회 울산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 제12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9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제6회 울산전국서도회 교류전 ● 제30회 현대사진동호회 회원전	10 ● 제6회 울산전국서도회 교류전 ● 제30회 현대사진동호회 회원전	11 ● 제6회 울산전국서도회 교류전 ● 제30회 현대사진동호회 회원전	12 ● 제6회 울산전국서도회 교류전 ● 제30회 현대사진동호회 회원전
16 ● 제7회 한국현대창작예술협회전 ● 천에 핀 야생화전 ● 제17회 울산현대회화작가회 회원전 ● 제16회 울산미협 문인화분과전	17 ● 제7회 한국현대창작예술협회전 ● 천에 핀 야생화전 ● 제17회 울산현대회화작가회 회원전 ● 제16회 울산미협 문인화분과전	18 ● 제7회 한국현대창작예술협회전 ● 천에 핀 야생화전 ● 제17회 울산현대회화작가회 회원전 ● 제16회 울산미협 문인화분과전	19 ● 제7회 한국현대창작예술협회전 ● 천에 핀 야생화전 ● 제17회 울산현대회화작가회 회원전 ● 제16회 울산미협 문인화분과전
23 ● 제20회 울산사생회 회원전 ● 제49회 울산일요화가회 회원전 ● 제9회 울산젊은사진가협회 회원전 ● 제15회 울산현대한국화회 회원전	24 ● 제20회 울산사생회 회원전 ● 제49회 울산일요화가회 회원전 ● 제9회 울산젊은사진가협회 회원전 ● 제15회 울산현대한국화회 회원전	25 ● 제20회 울산사생회 회원전 ● 제49회 울산일요화가회 회원전 ● 제9회 울산젊은사진가협회 회원전 ● 제15회 울산현대한국화회 회원전	26 ● 제20회 울산사생회 회원전 ● 제49회 울산일요화가회 회원전 ● 제9회 울산젊은사진가협회 회원전 ● 제15회 울산현대한국화회 회원전
30	31		

울산지역 공연 & 전시 정보

중구문화의전당

공연



2020 조윤범의 리듬콘서트 작곡가 시리즈
차이코프스키

2020. 12. 08.(화) 19:30
전석1만원(초등학생 이상관람가)

공연



가장 낭만적인 국민밴드
「데이브레이크」

2020. 12. 05.(토) 17:00
전석3만원(2020수능생50%할인)

공연



재즈보컬리스트 동산의
「해피크리스마스 콘서트」

2020. 12. 19.(토) 19:00
전석3만원(초등학생 이상관람가)

공연



아츠홀릭 판 이희문 컴퍼니
「한국남자」

2020. 12. 17.(목) 19:30
전석1만원(초등학생 이상관람가)

현대예술관

상영



영상으로 만나는 명작무대
세네스테이지 「겨울이야기」

2020. 12. 22.(화) 19:30
무료(초등학생 이상관람가)

공연



어린이 명작무대IV
뮤지컬 「고추장 떡볶이」

2020. 12. 26.(토) 11:00, 15:00
전석1만원(5세이상 관람가)

전시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展

2020. 7. 30(목)~12.27(일)
일반 10,000원 / 중고등학생 이하 8,000원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



김성녀 모노드라마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

2020. 12. 4.(금) 19:30
전석1만원(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공연



민경인 트리오 with BMK

2020. 12. 10.(목) 19:30
전석1만원(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공연



2020 송년음악회 with 신효범

2020. 12.18.(금) 19:30
전석1만원(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울주문화예술회관

공연



12월 하우스 콘서트
〈울디스 벳 구디스〉

2020. 12. 10.(목) 11:00
입장료 5,000원

전시



2020 울주아트 지역작가 공모 당선작
권 신 초대전 '곰'

2020. 11. 20.(금)~12. 1.(화)
무료

상영



12월 울주시네마 어린이영화
〈요괴워치 포에버 프렌즈〉

2020. 12. 12.(토) 11:00, 14:00
입장료 2,000원

상영



12월 울주시네마 무비나잇 다양성 영화
〈나는 보리〉

2020. 12. 12.(토) 19:00
입장료 1,000원

※ 공연 및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이용 방법

주차 차단기 올려져 있을 경우

▶ 안내방송에 상관없이 **바로 출차**

※ 공연 종료 후 차량이 물리는 시간대에는 무정차 통과

주차 차단기 내려져 있을 경우

1) **호출** 버튼 누름

2) **안내 방송**에 따라 감면확인증 올려놓기 (공연티켓, 주차권)

3) **확인 후 출차**

문의처 : 울산시설공단 주차관제센터(052-226-0319)



문의 052)226-8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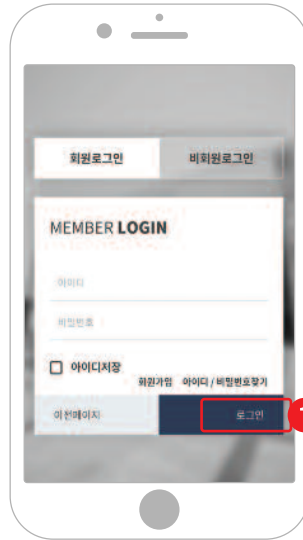
※협약점 게재 순서는 업종과 협약일 기준입니다.

협약점 이용방법

스마트폰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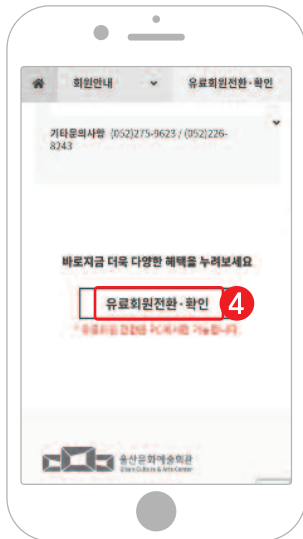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회원안내]
유료회원전환·확인 메뉴 들어가기



하단 유료회원전환·확인 클릭



유료회원 여부 확인

간단히 알아보기

1.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2.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3. 회원안내
유료회원전환·확인 메뉴 들어가기
4. 하단 유료회원전환확인 클릭
5. 유료회원 여부 확인

유의사항 * 유료회원께서는 하단의 이용방법을 숙지 후 협약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를 경우 회관 052)226-8242 으로 문의바랍니다.

* 이용가능 회원종류 : 일반, 가족, 청소년, 단체회원
* 캡처화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스마트폰 미 사용자

회관 방문 후 회원증 발급 및 회원증 사용(발급비용 없음)

DECEMBER JAZZ & WORLD MUSIC

디 셈 버 재 즈 & 월 드 뮤 직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20.12.11.(금) 오후8시

2020.12.12.(토) 오후5시

2020.12.13.(일) 오후5시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작
과가컬처레이블

출연팀
파이브 브라더
강허달림
모던 사운즈 재즈빅밴드
하림과 블루카멜양상블
Moon(혜원) with 준스미스
NA EM프로젝트(플라멩코)

관람연령
초등학생이상 입장가

소요시간
100분(휴식10분포함)

티켓
전석1만원

예매 및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ucac.ulsan.go.kr